

## □ 주요내용(현황)

### ○ 추진배경

-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조기 확산방지
-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의 국내·외 발생으로 도내 유입 가능성 상존
- 정밀진단기관 자체운영으로 신속한 질병진단과 초동방역체계 구축

### ○ 사업현황

- 조류인플루엔자(AI) 검진사업
-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모니터링 검사사업
- 구제역(FMD) 혈청검사 예찰사업 등

## □ 추진실적

### ○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및 특별방역대책 추진

#### [조류인플루엔자]

-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사 : 2,448호 16,816건(양성 15호 56건)
-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검사 : 111호 4,229건(양성 1호 11건)
- 가금농가 HPAI발생 및 방역지역내 방역조치
  - 발생 현황 : 하동 육용오리 1건, 김해 산란계 1건 (전국 47건)
  - 발생농가 방역대내 검사 : 70호 165건
  - 발생농가 사후관리 점검 : 18회 실시, 미흡사항 보완 지도
  - 방역대 해제검사 : 76호 294건
  - 발생 역학관련 검사 : 103호 675건
- 야생철새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방역조치
  - 발생 현황 : 김해 해반천 2건(전국 149건)
  - 방역대 예찰(76호), 검사(41호 88건), 소독(21회), 해제검사(35호 68건)
- 산란계·종오리 농장 일제검사 : 108호 1,060건

- AI 방역취약 대상 일제검사
  - 1차(종오리·육용오리 1차) : 41호 713건
  - 2차(종오리·육용오리 2차) : 46호 362건
  - 3차(방역취약 축종) : 169개(농장, 시설, 차량) 1,209건
- 고병원성 발생 계열화사업자 농장 일제검사 : 86호 1,521건
- 농가, 거점소독시설·통제초소 및 방역차량 환경 검사
  - 가금농가 입식전, 현장점검 등 환경시료 : 286호 918건
  - 거점소독시설·통제초소 : 210개소 343건
  - 가축방역 및 시료채취 차량 환경 : 106대 269건

#### [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]

- 일반 돼지농장 일제검사 모니터링 검사 : 332호 3,352건
- 밀집사육단지 및 방역취약 농가 모니터링 검사 : 28농가 290건
- 도축장, 사료공장, 분뇨업체 등 축산시설 환경검사 : 112개소, 1,885점
- 야생멧돼지 ASF항원 검출 역학관련 등 취약농가 소독지원 : 125호
- 야생멧돼지 포획개체 모니터링 검사 : 198건
- 구제역 혈청예찰(NSP·SP) 검사 : 39,586두 검사(NSP 19,828 / SP 19,758)
- 포유류 도축장 등 축산시설 및 매몰지 환경검사 : 52개소 1,049점

#### ○ AI·구제역 자체 정밀진단을 위한 정밀진단기관 운영

- 생물안전3등급실험시설(BL3) 설치·운영 책임자 교육 1명 수료  
(’22. 3. 2. ~ 3. 4.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)
- 가축전염병 정밀진단기관의 효율적인 검사 운영 강화를 위한 유지·관리 점검  
(상반기 10회 실시 / 월 2회(’22. 1. ~ 5.))
- 질병진단요원 교육 실시로 정밀진단능력 향상  
(구제역, AI 정밀진단 자체검증 6회)

#### ○ AI·구제역 및 ASF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비상운영체계 유지

- 고병원성AI 발생·구제역·ASF(삼각단계)에 따른 상황실 운영 강화(’21. 10월 ~ ’22. 2월)
- 동물위생시험소(본·지소)별 근무조 편성·운영 및 24시간 상황 유지

#### ○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도내 유입 대비 정밀진단기관 지정 추진

- 정밀진단기관운영 매뉴얼 구축, 인력 및 장비 확보

## □ 주요 성과(결과)

-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으로 도내 유입 방지 및 확산 방지
  -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이 없는 부산시, 울산시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업
    - 부산, 울산지역 축산시설 구제역 시료 송부 → 항원검사 1회 실시(시험소)
  - 도내 가금 사육농장 정밀검사 강화로 검사주기 단축 추진
  - 도내 HPAI 발생(농장 2건, 철새 2건) 외 추가 확산 방지 총력 대응
    - 시료에 대한 신속한 H5항원형 판정(시료접수 1일 이내)
    - 신속한 발생 방역대 방역조치·검사(농가신고 전, 선제적 감염농가 탐지 및 조치) → 도내 농가발생 2호로 억제
- 구제역·AI 정밀진단기관 자체운영으로 신속한 질병진단 및 초동 방역체계 유지
  - (구제역·AI 의심신고 시) → 1일(24시간) 내 진단 가능
  - (살처분 인력 조기투입 등) → 신속한 초동조치로 질병확산 방지에 효과
- 아프리카돼지열병 자체 진단·방역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
  - 도 및 시·군, 유관기관(방역본부, 수의사회, 양돈협회) 협조 체계 구축
  - 5개반(ASF진단반, 역학조사반, 시료채취반, 소독지원반, 방역지원반) 편성
- 반려동물(개, 고양이) 코로나 19 검사 관리 및 진단체계 구축
  -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동물담당부서 및 보건소 등 협업체계 유지

## □ 미흡한 점 및 대책

- 구제역·AI 및 ASF 상시예찰 기능 강화로 농가 차단방역 철저
  - 혈청검사 및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방역취약요소 사전 조치로 발생방지
  - 타 도 발생 역학관련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한 위험요소 색출
- 구제역·AI 및 야생동물 진단을 위한 자체 정밀진단기관 운영 강화
  - 구제역 및 AI 정밀진단 자체검증 상시 실시, 검역본부 협업으로 정도 관리검사 실시와 진단요원 교육으로 정밀진단능력 향상 총력
- 구제역·AI 및 ASF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비상체계 유지
  - 방역대책 상황실 상시 운영 및 24시간 비상상황 경계태세 유지로 전염병 발생 대비 대응 훈련 및 역학조사 능력배양 등 지속 실시